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기초 연구

강은주(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사회복지 4-4)

논문초록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의 부모와 자녀의 한국삶에 대한 적응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여러 가지 가족생태학적 측면의 불균형과 역기능속에서 양육되는 자녀문제는 지금은 나이어려 간과할 수 있어도 그들의 청소년기와 성년기 그리고 중년기에 이르게 되는 시점에서 국내 다문화 가정의 올바른 삶은 지금 근본적으로 지원되고 마련되어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안겨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한국전쟁이후 국제결혼 다문화가족은 극히 소수였으나 3D산업 대체인력 인구 증가, 농어촌 국제결혼가족, 새터민 가족, 일자리와 코리안 드림을 안고 찾아온 외국인들의 유입 등으로 다문화가족과 그들의 가족자녀 교육문제는 매스미디어의 주요 이슈요 우리나라 사회의 이정표가 될 만한 사회적 이슈가 되므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속에서의 그들의 자녀들의 인성교육의 개입을 통해 역기능적 가족구조가 그들의 인성형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중간개입을 통해 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지원될 필요를 가지므로 그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다문화 유아들을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독서치료학회 회장 역임, 마음경영연구소 소장

I.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타운에서 살아가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시 미군과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형성 이후, 1980년대 산업인력 대체인구로의 외국인의 대량이주, 1990년 이후 농촌청년의 국제결혼의 붐, 외국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코리안 드림을 안고 찾아온 외국인들의 유입등으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가족자녀 교육문제는 늘 매스미디어의 주요 화두이다.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의 합동통계지표에 따르면 2010.1월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122,000명에 이른다. 2008년 집계인 25,000명의 거의 5배로 볼 수 있다. 2009년도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연보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자녀들 중 6세 이하가 57.1%를 차지하고 있어 6-12세 이하의 아동들이 32.2%를 차지하여 앞으로 학령기에 아동의 증가가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 가정아동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에 대한 성공적 적응은 곧 그 가족출신의 자녀의 한국적응과 일치되며, 그들의 성공적 적응은 곧 우리의 미래의 다문화 사회의 균형적 삶과 직결되므로 다문화가족 출신의 유아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은 그들의 사회적 삶의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속에서의 그들의 자녀들의 인성교육의 개입을 통해 역기능적 가족구조가 그들의 인성형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중간개입을 통해 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지원될 필요를 가지므로 그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다문화 유아들을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연구지면상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자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내 다문화 가정의 증가

2008. 9. 22. 시행된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명시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및 관련법에 따라 태어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국제결혼(이주민)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귀화한 이주노동자 가정 등을 포함한다.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합동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0.1월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122,000명에 이르는 중요 인구대상으로 떠오른다. 다문화 가정자녀들 중 6세 이하가 57.1%를 차지하고 있고 6-12세 이하의 아동들이 32.2%를 차지하여 앞으로 학령기에 아동의 증가가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 가정아동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2009년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90,000명이었던 결혼이민자 수가 2008년 144,385명으로

전체인구의 16.2%에 육박했고, 2010년 1월(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현재 결혼이민자는 182,000이며2015년 266,000명, 2020년에는 354,000명으로 추산되며 2010년 자녀를 포함한 결혼이주다문화인구 수는 310,000명에서 2050년도에는 2,165,000으로 총인구의 5%에 해당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의 통계지표(따르면 2010.1월 현재 외국여성의 결혼이민을 통한 다문화가족은 전체 다문화 가족의 89.7%를 차지하며 다문화 자녀 수도 다문화 가족 자녀는 만 6세 이하가 75,776명(62.1%), 만 7-12세 30,587명, 만 13-18세 15,532명으로 인성형성의 중요시기의 자녀들의 총수는 121,895명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앞으로 학령기에 자녀의 증가가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 가정아동들의 인성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족, 또래, 교육기관 적응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저출산, 고령화, 세계회 및 결혼연령 인구의 성비 불균형등의 사회정책적 문제들도 이슈화 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

2.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과 대책

1)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11.3.11.)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는 국격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기존의 양적 서비스 지원을 넘어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다문화가족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정책안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볼때는 사회적으로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인성발달의 중요성은 이미 국가정책적 이슈가 될 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자녀의 양육과 성공적 발달이라는 두가지 과제는 항상 이들의 국제가정의 가장 큰 삶의 직면과제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삶의 적응 난제들이 그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녀들의 학교문화의 이질감과 이방인 취급 및 왕따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17.6%의 왕따경험의 주원인을 외국인 엄마의 존재성, 의사소통의 문제, 외모적 차별을 들수 있으며(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가족자녀들의 열악한 교육기회, 사회의 부정적 시선, 결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결혼후 법적 지위 미소유 등 미비한 정부 지원도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된다(오성배, 2007).

국제결혼가족의 계속적 증가추세에서 이러한 차별적 인적 사회적 환경은 성장과정과 사회적 적응이라는 성장과제에서의 누락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며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상적 배분을 통한 격차해소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특히 다문화자녀의 인성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인적환경은 아주 열악하여 다문화자녀의 인성의 기본 틀이 형성되는 유아기 자녀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입이 아주 시급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의 주양육자와 자녀간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들의 특성은 일반가정과 어머니에 비해 더 우울하고 비판적이며, 양육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적 성향의 양육태도, 수동적 상호작용, 무관심한 태도, 자녀에 대한 학교과제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자극의 제공 미비, 자녀의 자율성 무시 및 강압적 기대 전달, 자녀와 함께 성공적인 과제를 수행할 것에 대한 낮은 기대치, 긍정적 정서표현을 통한 상호작용활동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반가정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동시에 유지하고 수용하는 통합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육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곽금주, 2008), 부정적인 인적환경을 긍정적 환경으로 개선해줄 때 다문화유아들의 인성교육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대조적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다문화가족자녀 위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몽골출신 다문화가정자녀을 대상으로 한 홍진주(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아동의 사회심리적 하위인변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한부모가정과 학교폭력피해자, 새터민, 시설아동 등의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영주, 2008; 정현영, 2006).

다문화 자녀들의 인성 및 교육기관 적응관련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자아개념,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방안, 사회적 기술 등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애착,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가족적 특성, 교사-학생간 성격유형 일치도, 교사학생간 의사소통유형, 단짝친구여부, 사회적 지지등의 사회적 특성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원체계 존재여부와 사회적 지지 등의 사회적 특성의 관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일반적 결과들인데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 아동의 경우에도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그 상관관계의 폭이 더 깊을 수 있다(강종훈, 2000; 곽경화, 2000; 김경아, 2005; 문은식, 2002; 이옥주, 2003; 정윤주, 2004).

2) 다문화 가족과 자녀를 위한 국가적 대책

다문화 가족과 자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을 2008년 3월 21일 제정하고 9월 22일 시행해오면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생활정보제공과 교육지원, 유/아동의 보/교육지원,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주자들과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점차 개선하면 마련하고 있다(곽금주, 2008).

2010년 1월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발표하여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우선 지정기관으로 협약(2010. 6.)하고 멀티미디어 교육, 집합교육 및 가정방문교육과 취업기회와 지원을 위한 워크넷 제공,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 30%이상의 참여 의무화제도, 다국어 정보/상담/생활적응 지원확대 및 의료분야 전문인력 진료 코디네이터 양성,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및 배우자 교육,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등 결혼이민자 가정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언어학습,

사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글로벌인재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유아의 이중언어발달지원과 다문화 도서보급, 생애주기(신생아, 유아기, 아동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좋은부모 교육' 실시 및 '자녀 정서·생활지원 서비스'시범제공 및 아동/청소년의 멘토링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유아기 인성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 나눔문화 확신, 다문화이해교육과 홍보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 다문화자과녈 문화교육 자료실과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며 대학에서의 다문화 강좌개설을 확대하고 교원, 대학 담당자 등 대상 다문화 인식 개선 연수 시(3,000명)하며 다문화 교사·학생·학부모·연구자 등 수요자별 맞춤정보 제공을 위한 다문화교육 포털(www.damunhwa-edu.or.kr)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2010.11). 다문화가족지원 연계망 구축하여 8,000명 규모의 나눔봉사단이 가족상담, 자녀 학습지도, 지역단위 사업 모니터링 등 활동 수행(자원봉사 인증프로그램 등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관련부처로는 11개 중앙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11), 법무부(11), 행정안전부(12), 문화체육관광부(7), 농림수산식품부(2), 보건복지부(2), 고용노동부(6), 경찰청(1), 공정거래위원회(1), 여성가족부(34) 및 국무총리실(3)가 협력하고 있고 추진과제는 5대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를 시행하여 2010년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1년 57개 과제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예산 총 93,791백만원 중 2011년 시행계획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3. 인성교육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

창1:27절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창조된 인간'에 대한 기록과 창2:7절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라는 두 성경말씀은 영유아기의 유아들의 인성교육의 영적 특성을 가장 잘 시사하는 기본전제가 된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관계를 통해 성장 발달해야하는 인성적 조건을 갖추고 태어남을 의미하므로 그들의 인성교육에는 반드시 영적발달측면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유아의 영적발달은 영유아의 언어, 인지, 신체, 사회성, 정서발달과 전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발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눅2:52 '예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어린 예수의 전인적 발달을 잘 묘사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유아들의 유치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과 표준보육과정(여성가족부, 2005) 역시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기본 교육영역으로 삼고 있다.

만3세 이전의 유아들은 자신의 주양육자의 일관된 양육태도를 통해 그를 신뢰하고 그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해가며 이는 이후 삶의 사회적 인간관계의 기본 초석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3세 이후 양부모를 통한 동성, 이성 모델링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기본 경

험을 하게 되는데 많은 다문화 가족이 갖는 역기능적 요소가 되는 부모의 이중적 태도나 일관되지 않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나 우울 경향,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한 양육태도 등은 영유아의 인격형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위한 인성형성 프로그램을 위한 치료적 상담적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의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0.1월 현재 외국여성의 결혼이민을 통한 다문화가족은 전체 다문화 가족의 89.7%가 주양육자인 여성(어머니)이며 다문화 가족 자녀는 만 6세 이하가 75,776명(62.1%), 만 7-12세 30,587명, 만 13-18세 15,532명으로 인성형성의 중요시기의 자녀들의 총수는 121,895명으로 집계된다는 사실은 이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그들의 학교교육프로그램만큼 중요한 그들의 성공적 사회생활의 주된 이슈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학령기에 자녀의 증가가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 가정아동들의 인성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족, 또래, 교육기관 적응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다문화자녀의 인성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인적환경은 현재까지는 아주 열악하여 다문화가족의 주양육자와 자녀간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들의 특성은 일반가정과 어머니에 비해 더 우울하고 비판적이며, 양육스트레스가 크고, 거부적 성향, 수동적 상호작용, 무관심한 태도, 자녀의 과제수행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자녀의 자율성 무시 및 강압적 기대 전달, 자녀와 함께 성공적인 과제를 수행할 것에 대한 낮은 기대치, 긍정적 정서표현을 통한 상호작용활동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반가정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곽금주, 2008), 부정적인 인적환경을 긍정적 환경으로 개선해줄 때 인성교육 개입프로그램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4. 다문화 유아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1) 다문화 가족의 응집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1) 가족에 대한 성경적 이해

가족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언약신학에 근거한 것임은 출19:4-6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라는 성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 그를 경배하고 영원토를 그를 섬겨야 하는 언약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1970-1980년대에 걸쳐 Kenneth Gangel, Ray Anderson, Dennis Guernsey 와 Stuart McLean 등 언약에 기초한 가족관계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그들의 논문과 저서 등을 통해 가정의 패러다임으로 언약의 개념을 전개하였다(Gangel, 1977; Anderson, 1982; Anderson & Guernsey,

1985). 1984년 Stuart McLean은 가족관계와 언약관계의 공통점을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그 구성원이 서로 깊이 결속되어 있어서 서로 조화, 갈등, 다툼, 용서 등을 경험한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였다. 이들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개개인들과, 급기야는 전 이스라엘을 대답의 역사 속으로 불러들이시는 특별한 행동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일방적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언약적 사랑이 바로 가정의 기초인 이유를, 가정의 혈연적 유대(blood ties)는 소속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시하였다(Balswick & Balswick, 1995, 재인용)).

(2) 언약 관계속에서의 다문화 가족의 응집성의 필요

가족관계의 신학에서는 다루는 가족관계에는 "언약, 은혜, 힘의 부여, 그리고 친밀감"의 단계적 요소가 포함된다. 언약적 관점에서의 가족관계는 양육자와 젖먹이의 관계를 통해서 잘 설명되는데 양육자가 일방적인 사랑의 서약으로 자녀를 낳고 젖을 먹이며 자신의 서약을 수행해나가면서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아기가 어머니 젖을 물지 않고 친밀감을 갖지 않으려 한다면 모자간의 가족관계의 성장이 방해를 받거나 정체될 수 있다. 양육자의 사랑의 젖과 은혜를 잘 수용하는 가운데 젖먹이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힘을 부여받고 어머니와 아기의 친밀감은 더 잘 형성되어 지고 양육되어질 수 있으며 그 성장과정에서의 수 많은 실수와 과오들이 서로의 친밀한 의사소통(고백/대화)을 통해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관계를 갖는 수용적이고 따뜻한 가족간의 응집성을 갖게 된다. 자녀는 영아기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양육자로부터 일방적인 사랑과 수용, 용서와 힘의 부여 등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unilateral)으로 받게 되지만 장차 성장하면서 그도 사랑을 주고 수용하며, 용서해주고 힘을 부여하는 능동적 관계 참여자로 성장하게 되는 데 이것은 바로 부모-자녀 관계의 응집성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 설명되어 질 수 있는 쌍무적(bilateral)으로 오가는 관계로 성숙될 수 있다(Balswick & Balswick, 1995:21-26).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각 구성원이 온전하고 성숙한 가족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계획해 놓으셨다(엡4:13). 성숙한 가족관계는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정의 울타리 밖의 사람들에 까지 섬김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준다(Balswick & Balswick, 1995:27-37).

Olson과 DeFrain(1999)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 건강에 대한 기존의 개념들을 통합하여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건강한 가족(strong family)은 가족성원들이 문제나 의기에 처했을 때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라나도록 밑거름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인종과 민족, 국가를 막론하고 건강한 가족은 균형잡힌 응집성(cohesion, 가족간의 친밀감)과 적응성(adaptability, 가족간의 문제해결 대처능력과 유연성), 긍정적으로 의사소통(communication, 친밀하고 솔직한 대화), 난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굳은 신념체계(belief system), 친지나 이웃과의 유대감,

상위체계와의 연계성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정현숙, 유계숙, 2001).

2) 다문화 자녀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발달에 대한 필요

다문화 자녀들의 성공적인 인성발달은 곧 유아 긍정적 자아개념, 높은 자존감, 성공적인 스트레스 대처기술 습득방안, 사회적 기술 향상 등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다문화 부모 자신의 부모애착,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17.6%의 왕따경험의 주원인을 외국인 엄마의 존재성, 의사소통의 문제, 외모적 차별(보건복지부, 2005), 결혼이주가족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기회, 사회의 부정적 시선, 결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결혼후 법적 지위 미소유 등 미비한 정부 지원도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된다(오성배, 2007)을 통합하면서도 자녀의 안정된 인성발달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은 매일 성장하는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의 가장 큰 절박한 이슈이므로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김명희(2009) 역시 Bennett의 다문화 교육과정 모형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자존감 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인식과 자존감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수용성, 존중성 뿐만 아니라 개인적 자존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존감 학업적 자존감 역시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만3세 이전까지의 양육자와의 신뢰감형성은 그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앞으로 만나인 인간관계의 신뢰감 형성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또한 만6세까지의 부모를 동한 동성, 이성 역할 모델은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경험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 겪게되는 부정적 부모, 부모-자녀관계 경험은 이들의 이후의 삶의 사회적 적응과 인간관계 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전인생을 통해 그 그늘을 드리우게 되므로 이들의 영유아기의 행복한 부모의 역할 모델과 부모-자녀관계는 유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므로이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이무석, 2006; 이창재, 2006).

3) 가족과 자녀를 위한 심리정서적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으로서의 독서치료 필요

정신과 의사인 미실다인(2006) <몸에 밴 어린 시절>의 부정적 정서가 삶의 후기에 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풍부한 상담 경험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일반가정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서도 부모의 아이에 대한 강압, 징벌, 성적 자극, 방치, 거부와 같은 행동은 성장한 후에는 물론, 그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대물림 되므로 어린 시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프로이트의 '무의식'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인 개념의 '내재적 과거아'(inner child of the past) 이론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과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삶이 상처와 부정으로 일관되게 경험된다면 그것은 결국 이들 자녀의 미래에 바람직한 삶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예방과 조기치료적 차원에서의 심리정서적 삶의 질을 회복시

키시고 높여주는 좋은 대안으로서 독서치료의 유용한 자원으로 많이 활용되는 연구도서이다.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한 어린 시절을 경험을 위해서는 마음의 치료와 그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독서치료적 자원으로 이 책이 상당히 유용하다.

강은주(2003, 2005, 2006a, 2006b, 2008a, 2008b, 2010)는 그림이야기책을 통한 유아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서의 독서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연구하였다. 유아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유아의 내적인 요인(기질, 신체적, 정서적 특성)과 외적인 요인(사회, 경제적인 환경, 가족구조,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치관, 학교환경, 인간관계 등)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 복합적인 원인(스트레스의 축적, 긴장의 정도)에 의하여 일어나며, 그에 대한 치료와 해소 및 대처 방법으로서 그림이야기책을 활용을 추천하고 있다. 그림이야기책을 통하여 다른 유아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주인공과 동일시함으로써 두려움과 스트레스, 억압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이재연(2001)은 독서치료라는 새로운 상담치료기법이 유/아동들의 외모, 신체, 자존감, 자아개념과 인간관계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그것이 유/아동의 발달상의 문제나 적응상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에 적합하며 유아의 심리정서적 문제 치료에 적합한 그림책 선정을 통해 치료목표에 따라 함께 읽고 느낌이나 감정을 충분히 노출하는 경우, 유아와 상담자(양육자, 교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높여주고, 책의 정보를 통한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하고 성공적인 적응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문화 자녀-부모에게 좋은 상담치료매체인것과 연관될 수 있다.

신창호(2006)는 발달장애, 감정, 사회적 정보처리 결함 및 의사소통 규칙 습득의 어려움을 가진 유아들에게는 독서치료적 해결방법이 효과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내의 아동과 부모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여 자칫 언어지체와 인지지체로 오판되는 현실 속에서 경도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통한 구체적 활동을 함으로써 아동의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 주의집중 및 학습동기를 향상시킴으로 인지발달 및 기초학습기능에 도움준 본 연구는 상당히 유효한 정보적 자원이 된다. Watson(1994)의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Hynes 와 Hynes-Berry(1994)의 독서치료 4단계를 기초로 한 33회기의 독서치료 실행후 사후검사결과 발달연령분포가 1년이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고, 기초학습기능검사결과 발달연령분포가 3개월이 높게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일반아동이 아닌 대상은 발달장애아동인 것을 감안 한다면 기초학습기능의 발달에 효과가 있었음을 볼 때 사회적 정보처리가 낮을 수 있는 가정적 요인을 가진 다문화 유아들에게 적용적 시사점을 주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박경애(2006)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적 태도와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과 그림책 관련 토의 활동 및 극화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등이 독서치료의 방법과 원리를 적용하여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통해 정서지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다. 만 4, 5세 유아 중 동생과 친구문제로 정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유아 74명을 대상으로 '정서적 문제 설문지'와 '유아용 정서지능 평가도구'를 사용실시한 결과 정서지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더 효과적이었으며 연령과 관계없이 비교집단보다 실험집단의 정서지능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 어머니의 모국문화와 모국어를 사용하다 교육기관에 와서 한국언어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발달적이고 정서적이며 심리적 위축감을 그림책을 이용해 독서치료적으로 접근할 때의 효과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기영(2005)은 대전 D 초교 3학년 G초교 5-6학년생 각각1명씩 총 3명을 대상으로 정종진(1996)이 개발한 자아개념 검사를 실시한뒤 자아개념에 도움을 주는 책을 선정하여 14-21주간 실시한 결과, 자아개념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본 결과, 아동의 학업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자아개념 및 총자아 긍정의 점수가 향상되었고 아동의 자신감 향상으로 흥미위주 독서태도와 학습위주의 독서태도에도 향상된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개인독서치료보다 집단독서치료를 병행할 때 그 효과가 더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언어적 측면에서의 멘토와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방적/치료적 접근이 독서치료의 효과를 잘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다문화 자녀의 장점을 살리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와 주류사회 언어의 자유로운 구사는 오히려 인지적 혜택과 문화적 혜택을 가져 높은 학업성취와 상관될 수 있다. Schon(2004)는 이중언어로 된 그림책 출판이 이중언어습득의 좋은 창구가 되는 효과를 겨냥하여 이중언어로 출판된 그림책을 선호하긴 하지만 자신의 모국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의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모국어의 발달이 선행되어 제2언어로서의 이중언어발달은 유아들과 다문화학부모, 그리고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이중언어효과를 줄수 있다는 장점을 잘 시사한다. Agostos (1997) 역시 이중언어 도서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서고에 비치되어 있어 아동들이 자신의 큰 자원이 되는 이중언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Zhou(1997)와 Fernandez 와 Nielson(1986)는 미국의 전역에서 여러 연구결과 Hispanic과 European 학생들 사이에게 영어와 부모의 모국어 등 이중언어에 모두 능통한 것이 학업적 성취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 만큼 그들의 민족적 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을 높여주는 대안이 또 있을까?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삶이요 문화이며 호흡이므로 그들의 언어와 한국어로 병행된 그림책을 이용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자존감 높이기는 그들의 인격을 가장 잘 높여주는 접근으로 보여진다.

이중언어 그림책을 이용하여 늘 사회에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 그들의 외국인 부모와 자녀를 모두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어머니가 함께 책을 읽어주고

유아가 엄마의 모국어 설명과 충분한 의사소통의 장을 열어 자신의 언어적 제한과 문화적 제한에서 벗어나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호흡할 수 있는 심리적 산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중언어 그림책을 활용한 학교와 부모-자녀간의 긴밀한 상담과 치료적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King, Vidourek, Davis, & McClellan, 2002)

황범주(2008)는 국내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교육정책, 교육소외 방지 교육정책, 인적자원 개발 교육정책의 3가지 영역에서 분석 검토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적응성과 정체성 심어주기, 이들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시행하기, 우리모두에게 공동체의식 고취시키기, 다문화자녀의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소수자의 주류사회 편입기회 확대 및 그들의 문화 언어를 수용하고 개발하는 교육 사회적 정책이 필요하며 그들을 위한 상담자와 멘토 활용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책시행 대상을 미취학 유아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중언어적 자원개발과 학교적응을 위한 통합적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와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5) 교육사회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

김경란(2007)은 다문화 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대상어린이들이 자아정체감 형상에 큰 혼란을 겪고 언어문제, 사회적 편견으로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이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속적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학급이 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들이 실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체류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한국문화 인지도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사회지지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지지도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이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문화가정을 위한 편견없는 사회적 환경제공과 체계적 언어교육 체제 및 심리정서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있다. 또한 이미 부적응하고 있는 자녀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심리치료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오은순(2008) 등은 사회과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지원방안 연구에 대해 교육사회적 관점에서 교수학습이론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일본, 호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6개 국가의 다문화교육의 선례들을 고찰하였고, 국내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실태와 요구를 진단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 연구경험자, 교육전문가와 민간/사회단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다문화교육 지도경험의 응답자의 수가 매우 저조했으며, 지도대상은 주로 초등학생들이었으며, 주제로는 다양성과 정체성 등을, 교수학습목표로는 타문화 이해와 존중 및 인권/인간의 존엄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성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 자녀들을 위한 지원책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이다.

교과부에서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방안 수립후 전국 16개 시도도교육청을 중심으로한 다문화가정 유아/초등학생의 한국어, 기초학력 향상지원과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지원 및 다문화 교육기반구축,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신이라는 4대 정책과제를 700억 예산 규모로 계획한 것은 다문화 자녀들의 인지적 교육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그 하드웨워 내의 심리정서적 소프토웨어 지원은 병행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11.3.11.)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는 국격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기존의 양적 서비스 지원을 넘어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다문화가족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정책안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볼때는 사회적으로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인성발달의 중요성은 이미 국가정책적 지원이 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좀더 마이크로한 수준에서 각 가정의 육아상황에서의 부부, 부부-사회, 부모-자녀, 자녀-자녀, 자녀-또래 , 자녀-사회 등의 세부적 양육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초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될 수 있으며 각각의 연구는 추후연구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표1>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기초연구

기초연구 영역	세부 영역
1. 다문화 가족의 응집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성경적 이해: 언약가족에 대한 이해
	언약가족 안에서의 응집성에 대한 연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2. 다문화 자녀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발달에 대한 필요	다문화에 대한 바른이해와 교육 (다문화 가족과 일반가족 대상)
	상처받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적 진단과 치료책 마련
3. 가족과 자녀를 위한 심리정서적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으로서의 독서치료 필요	이중언어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부모참여)
	다문화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심리정서적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 실행계획
	대상 유아들의 심리치료 진단과 독서치료 실행 및 독서치료사 지원
	가족대상 독서치료와 관련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시
	부부, 부모-자녀, 자녀간 독서치료 실행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도서자료, 정보제공 강화
4. 다문화 자녀의 장점을 살리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언어교육 방안 모색 및 실행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다문화 도서보금 및 독서지도/지도사 보급/출판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 언어지원 도우미로의 활용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독서치료 자료 보급
5. **교육사회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기관 및 사회교육 활성화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센터와 지자체 일선공무원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웍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성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부부, 부모-자녀, 자녀-또래, 자녀-사회의 양육체제 확립

5. 결론 및 제언

다문화가정은 이제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생활 공동체 속에서 매일 접하는 우리의 나라 공동체 구성원이다. 그는 우리의 학생/제자, 이웃, 내 자녀의 이웃, 내 옆집 아웃이 될 수 있고, 나의 스승과 나의 일터의 동료가 될 수 있다. 그들의 이슈는 그들의 이슈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이 한국땅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성인이 되기 까지 그들은 한국을 자신의 나라로 접하면서도 이방인으로 살아야하는 왜곡된 삶의 패턴을 수용하지 못한데, 이 삶에 동화되지 못한채 심리적, 공간적, 사회적 이방인으로 내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질서와 공동체적 삶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인성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의 다문화자 자녀들의 인성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차대 하여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이 나라라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대외적 관계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각 자의 몫을 크게 하는 데 있어 그들의 기여도를 간과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가 태어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앙금을 걷어내고 즐겁고 희망찬 삶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과거와 오늘의 그늘을 걷어주고 그들의 삶을 덜 불편하게 살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일할 내적 원동력인 자존감과 자기동일시와 관련된 중요한 심리정서적 인성기반을 갖추어주는 일이므로 이에 따른 인성교육을 가정과 유아,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함께 움직여 그들을 전폭적으로 그리고 전인적으로 지지해주고 제공해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은주 외(2004). 독서치료(개정판). 서울: 학지사.

_____(2003). 독서치료의 실제. 서울: 학지사.

_____(2006a). 저널치료. 서울: 학지사.

_____(2006b). 저널치료의 실제. 서울: 학지사.

_____(2008a). 시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_____(2008b). 발달적 독서치료의 실제. 서울:학지사.

_____ (2010).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치료. 서울:학지사.

강종훈(2000). 초등학생의 자존감과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대 석사논문.

교육인적자원부(2007. 12. 13).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곽경화(2000). 성격특성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인제대 석사논문.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6.

김경란(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 석사논문.

김경아(2005). 초등학생의 우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 충남대 석사논문.

김명순 (2005. 11) 표준보육과정.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05-26.

김명희(2009). Bennett의 다문화 교육과정 모형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다문화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대 석사논문.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8937호.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 박사논문.

박경애(2006).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독서치료연구 2(2). 17-46

보건복지부(2005). 국제여성 이주여서어 실태조사.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고서.

신창호(2006). 독서치료를 통한 경도발달장애아동의 인지발달에 관한 연구독서치료연구 2(2). 99-128.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1. 3.11).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 기본계획(2010-2012)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오성배(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12. 1-15. 카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오은순 외 (2008).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지원방안연구. KICE. 연구보고 RRI 2008-5.

이기영(2005) 독서치료를 통한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향상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이무석(2006). 30년만의 휴식. 서울:비전과리더쉽.
이영주(2008). 다문화 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보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79-101.
이옥주(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77-85.
이재연(2001).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치료와 적용과 전망. 兒童硏究 15(1).
이창재(2006). 프로이드와의 대화. 서울: 학지사.
정윤주(2004). 또래 관계경험 및 가족지지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4(11). 1-15.
정현숙·유계숙(공저), , 학지사, 2001
정현영(2006).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에 관한 연구-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논문
통계청(2009), 인구동태통계연보.
행정안전부(2006). 국제결혼이주자 자녀수. 전국 거주 외국인 기초 실태조사. 2006년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부 자치행정과 통계자료.
행정안전부(2006). 국제결혼이주자수. 전국거주외국인기초실태조사. 2006년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부 자치행정과 통계자료
홍진주(2003).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황범주(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 박사논문.
Agosto, D. (Aug., 1997). Bilingual picture books: Libros Para Todos. *School Library Jr.*
Anderson, R. & William, B. (1982). *On Being Human. Essays in Theological Anthropology. ,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Anderson, R. and Guernsey, D. (1985). On being family: Essays on a social theology of the family. Grand Rapids, MI: Eerdmans
Balswick, J.O. & Balswick, J. K. (2006). A Model for Marriage: Covenant, Grace, Empowerment and Intimac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Fernandez, R. M & Nielson, F. (1986). Bilingualism and Hispanic scholastic achievement: some baseline result. *Social Science Resarch 15*. 43-70Landale, N., & Oropesa, R. S. (1995). Immigrant children and the children of immigrant: inter and intra-ethnic group differences in the US. PRG Research Paper 95-2. East Langsin: Institute for Public and Social Research, Michigan State University.
Gangel, K. O. (1977) "Toward a Biblical Theology of Marriage and Family", Jr of P*sychology & Theology, Winter, 60*
Hynes, A. M., & Hynes-Berry, M. (1994). *Biblio-poetry therapy, 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St. Cloud, MN: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Inc.

King, K. A., Vidourek, R. A., Davis, B., & McClellan, W. (2002). Increasing self-esteem and school connecteness through a multidimensional mentoring program. *Jr of School Health 72(7).* 294-259.

Olson, D. H. L.,& DeFrain, J. D. (1999).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ountain View, CA: Mayfield.

Shon, I. (Sept. 1, 2004). Bilingual books: celebrations vs. confusion. Booklist.

Zhou, M. (1997). Growing up American: the challenge confronting im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of immigra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63-95.

Watson, D. C. 1994. *The effects of three bibliotherapy techniques on fourth grader's self-esteem, reading achievement, and attitudes toward reading*. Ed. D. Thesi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